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9. 3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	강병수	☎760-7901
		특화작목육성팀장	오승진	☎ 760-792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조생양파 ‘재배 전 과정 일관기계화’ 속도 높인다

- 수확 기종 선발 · 육묘 환경 개선으로 일관기계화 체계 갖춰 -
- 지난해 기계정식 3.2ha 추진…올해 10ha 이상 확대 목표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강병수)는 제주 서부지역 양파 재배 여건에 맞는 일관기계화 체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현장 적용에 나선다.
- 양파는 파종 · 육묘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작물이다.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2025년부터 22억 원을 투입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‘양파 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사업’을 추진하고 있다.
- 지난해에는 농협과 작목반 등 4개 단체에 15종 62대의 농기계를 도입하고 3.2ha에서 기계정식을 추진했다. 그 결과 정식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10a당 48.2% 절감했다.
- 올해는 조생양파에 적합한 수확 기종을 선발하고 육묘 환경을 개선해 ‘모판파종 → 육묘 → 기계정식 → 방제 → 줄기절단 → 기계수확’으로 이어지는 서부형 양파 일관기계화 체계를 갖췄다.
- 제주 서부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조생양파는 조직이 약해 기계수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가 상품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.

- 이에 지난 5월 수확 시연회와 두 차례 자체 검증을 거쳐 조생양파에 적합한 굴취·수확 기종을 선발했다.
- 또한 육묘 받침대와 트레이 세척기 등을 도입해 병해충 발생 위험을 줄이고, 기계정식에 적합한 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육묘 환경을 개선했다.
-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기계정식 면적을 10ha 이상으로 확대하고 ‘양파 기계정식 모델농장’을 선정·운영해 일관 기계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.
- 모델농장을 중심으로 기계정식부터 재배관리, 수확까지 단계별 기계작업을 적용하고, 농가 대상 현장 지도와 기술교육을 통해 기계화 재배기술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.
- 강병수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은 “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 체계를 갖춘 만큼, 앞으로 현장 적용과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겠다”며 “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고 양파 기계화 재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